지역 소식통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부안군은 지난 4일부터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지급은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로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군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되며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군민들은 18일부터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동학혁명 대상 도올 김용옥 선생 선정

정읍시가 제10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상자로 도올 김용옥 선생(1948년생)을 선정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김용옥 선생은 동학사상에 깊은 학식을 가지고, 동학사상의 대중화를 위해 창무극 '천명'을 극본하고 수십 차례 동학 관련 강연회를 개최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은 동학의 사상과 접포조직을 이용해 발발했던 만큼 도올 선생의 활동은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관련해 시는 지난 1일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연구자와 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 학계, 시의회,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자 선정과 함께 국가기념일 제정·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폭넓은 대화를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포스트 코로나 대비 분주

부안군, 지역경제·민생안정 종합대책 점검 보고
소상공인·일자리·세제·소비촉진분야 등 논의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4일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및 민생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종식 후 분야별, 관과소별 지원대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코로나 종합대책 점검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감염병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방역 등 감염예방 대책은 물론, 코로나19 종식 후 분야별 민생안정, 경제지원 대책 방안,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앞두고 소관 시설물 점검 등 다각적인 방면을논의했다.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으로 소상공인 분야는 △관내 소상공인 공공요금, 카드수수료, 사회보험료 지원 △부안사랑상품권 확대 발행(100억원→200억원, 가맹점 모집 확대(1,230개소→2,000개소) △부안사랑 상품권 특별할인(10%) 기간 연장 검토 등이다. 일자리 분야는 △프리랜서 및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단기일자리 및 희망근로 제공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 △청년 신규채용 촉진 지원 등이다. 세제 분야는 △상업용 공유재산 임대료 80%인하(2월~7월까지) 등이다. 농업분야는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1개소→8개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50%인하(201종 927대) △농기계 운송서비스 시행 등이다.

소비촉진분야로 △부안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친환경 농산물사주기 △부안드림몰 입점업체 추가모집 및 드라이브스루 직판장 운영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 월 8회 운영 등이다.

이외에도 5월 6일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재개되는 공공 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 운영 재개를 위한 사전 시설물 방역 및 코로나 종식을 기대하는 군민들에게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청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후되거나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꽃 식재 및 수목관리, 청소 등 주변 환경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분야별로 계획한 대책들이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4일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저온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농가를 위로하고 아픈마음을 함께했다.

농작물 저온 피해농가 방문 위로

권익현 부안군수, 현장 행정

권익현 부안군수는 4일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저온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농가를 위로하고 아픈마음을 함께했다.

이번 농작물 저온 피해는 최근 평년대비 따뜻한 겨울 기온으로 인하여 맥류의 출수기와 과수의 개화시기가 평년보다 빨라진 상태에서 지난 3~4월 부안군의 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하여 나타난 피해이다.

이에 대응하고자 부안군은 신속한 복구 및 피해조사를 위해 읍·면산업팀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접수 및 정밀조사를 4월 24일부터 실시하고 있고 3~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저온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해 피해농가의 피해상황을 점검하였다.

권 군수는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어 안타까우며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농작물 저온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어르신 잘 모시는 효자군수 될 것"

유기상 고창군수, 지역 최고령 어르신 찾아 무병장수 기원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효자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상 고창군수가 알록달록한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반찬 만들기에 나섰다. 채소를 다듬는가 하면 마늘을 찧으랴 서투른 손을 바삐 놀렸다.

1시간여 만에 고창군 노인복지관 직원들과 함께 소불고기, 마늘쫑, 열무무침 등 반찬을 뚝딱 만들었다. 유 군수와 고창군 노인복지관 직원들은 포장까지 마친 반찬을 정성스럽게 들고 고창군 최고령 어르신이 사는 집을 찾아갔다. 어르신은 마을 어귀까지 나와 유 군수와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고창군 대산면 장동마을 김귀아 어르신은 112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직접 국회의원 투표장을 찾는 등 지역 건강 장수의 대표적인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장수비결을 묻는 말에 "특별히 관리라고 할 것 없다"며 "그저 일어나면 동네 한 바퀴 돌고 많이 걷고 밥 잘 먹고 그런 것뿐"이라고 말했다. 지역 꽃집에서 후원한 치자꽃 화분에 눈을 떼지 못하며 "물도 잘 주고 이쁘게 키워 보겠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가 관내 최고령 어르신께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유 군수는 어르신께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큰절을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어르신의 팔과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말벗을 하며 오래도록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내 안의 숨은 잠재력 찾아보세요"

유기상 고창군수, 미래의 꿈나무 2000명에 꿈편지 전달

"우리 내면에는 상상도 못할 거대한 잠재력이 숨어있어요. 그 힘이 발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꿈을 꾸고,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내 안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잘 찾아보세요."

고창군은 2020년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 약 2천명 아동들에게 어린이날 축하서한문을 전달했다.

어린이날은 1975년 5월 5일에 지정되었고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바르고 아름다고 씩씩하게 자라는 마음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난 4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세 가구를 방문해 보드게임과 꾸미기 책이 포함된 꾸러미 선물을 전달해 즐거움을 선사했다.

아이들에게 "하루하루가 어린이날처럼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다"며 "항상 밝고 건강하게 커나가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고창군은 삼동청년회와 함께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매년 어린이 민속 큰잔치를 열어 긴 줄넘기, 굴렁쇠, 투호 등 민속놀이마당, 문화체험마당 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어린이날 행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소되어 마음껏 뛰어 놀고 싶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서한문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자식농사 잘 짓는 고창 만들기를 군정 주요목표로 정하고 지난해 전북 최초 초등학교 입학생 책가방 구입비 지원, 아동수당 지급, 가정양육 지원,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전국 최초 군 단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아이들의 미래가 곧 고창의 미래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아동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가 판로확보·학부모 식자재 부담 던다

고창군, 관내 5200여명 학생에 농산물 꾸러미 지원

고창군이 학교급식 중단에 피해를 입은 농산물 생산농가의 피해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관내 41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5200여명의 각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7종세트 꾸러미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22일 각급 학교와 고창교육지원청, 급식센터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친환경농산물 급식 협의회를 열고 7종의 꾸러미 품목을 결정했다. 관련 비용은 미집행 급식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품목은 고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쌀, 서리태, 고춧가루, 햇감자, 양파, 대파, 표고버섯 등 학생 1인당 3만원 상당의 꾸러미가 제공 된다.

특히 농산물꾸러미 제작 현장에서 품질을 점검해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산물꾸러미 지원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과 학부모 부담경감, 농가 및 유통업체 피해 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은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하루 빨리 군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